

김홍석 - 정승일

정승일

197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한국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후, 2005년 독일로 이주하여 학업을 이어갔다. 2011년 졸업 후, 전업 작가로 생활하다가 2013년 5월 초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재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 개인전 《깨 어 있으라》(스무다예쎬 갤러리, 2013), 《데뷔전》(갈러리 데어 퀴스틀러, 2012), 《1x1x1》(성 바울 교회, 2011)을 가졌으며, 대표적 그룹전으로는 《뮌헨 드로잉하다》(갈러리 데어 퀴스틀러, 2013), 《지루함의 저력》(로트링어13, 2012), 《그리움》(아버 아트스페이스, 2011), 《나의 다른 이야기. (불)가능한 정체성들》(막시밀리안스포룸, 2011), 《디스플레이 '10 - 세 가지 특징》(슈타인레 컨템포러리 갤러리, 2010), 《콘스트마일레 마인부르크》(아벤느 강변, 2010) 등이 있다. 2012년 데뷔상 (바이에른 주)을 수상하여 첫 번째 개인 작품 도록을 출간하였다. 작품에서 이미지를 중요시하며, 문화의 상이함을 혼합하거나, 거울을 통해 장소성을 변형시키고, 다수의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드로잉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대표작으로는 〈외부의 내면〉(2010), 〈그것은 계속된다〉(2010), 〈모내기〉(2007) 등이 있으며, 2014년 하이트컬렉션의 그룹전에서는 신작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2014)를 선보인다. 아트선재센터의 스크리닝에서는 〈보고 들으라〉(2010), 〈모내기〉(2007)를 상영한다.

정승일과의 대화

김홍석: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독일의 미술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갔는데, 독일의 문화예술에서 영향을 받아 제작된 자신의 작품을 다른 이가 보고 독일스럽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해 줄 수 있나요? 만약 자신의 작품이 독일스러워 보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러한 평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왜 그런걸까요?

정승일: 저는 제 작품이 다른 이들에 의해 한국적이라던가, 독일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한국적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살아오지 않았는데, 한복이 제게 있어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과 전통적인 것이라 교육받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작품에 대해 한국적 요소가 적어 보이고, 독일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면, 평가하는 사람이 국가적 기준에 집착하거나, 스타일을 유독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홍석: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승일: 제 작업의 아이디어는 일상과 차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순간을 관찰하거나 제가 살아 온 방식과 다른 이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게 너무 식상하여 지루하지만 않다면, 저의 관찰로 인해 찾아진 대상은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차이에 의한 놀라움을 제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미술의 범주 안에서 표현하려 시도하며 그 안에 아름다움이 내재되기를 기대하며 작업합니다.

독일이란 나라는 한국에서 성장한 제게 너무나도 다른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남들은 제가 소위 유학생으로서 독일의 미술을 배우러 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서구유럽미술을 배우러 온 것 이라기보다, 다른 의미로 인해 제가 독일에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한국을 아시아라고 생각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적 차이를 서로 혼합 또는 연결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파게티국수로 모내기를 하거나, 쌀로 만들어진 치즈, 여러 국가의 약보를 겹쳐 공통되는 부분만 남겨진 음표들, 한국의 분단 상황과 독일의 통일 모본을 결합한 비디오 작업 등과 같은 혼성적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표현되는 방식은, 설치,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드로잉 등 그 주제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제 작업의 주제는 사회와 지역이 제공하는 인식과 관념으로 인한 '일상적이지 못한 일상'입니다. 저의 작품들은 저의 삶의 조각이자 자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삶은 혼성적이고 잡종적이지 않거나 싶습니다.

김홍석: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미술은 무엇입니까?

정승일: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미술입니다.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미술보다는 모두를 위한 미술이 좋은 미술이라 생각합니다.

김홍석: 창작 활동 이외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정승일: 독일어학원에서 독일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끔 지인의 요청으로 그의 집을 방문하여 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석: 미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승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의 감정적인 측면에 말을 걸고, 감동을 주며, 새로운 시각화의 방법을 제시하여 생각의 틀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이트컬렉션 <미래가 끝났을 때> 도록의 인터뷰 글 중